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미하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들

루가 제5주일

성 아키페시마, 성 요셉, 성 아이탈라 순교자

제3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갈라디아 1, 11-19 / 봉독서 287

· 복음경: 루가 16, 19-31 / 125. B 6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미하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들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8일을 ‘미카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 축일로 기념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성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떨쳐 나와 노래를 부르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나와서 합창을 불렀다.”(욥기 38:7)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

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히브리서 1:14)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세 대천사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엘 대천사입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이 붙여주신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평화의 천사, 믿음의 인도자, 수호자...’로서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과 영혼을 모든 악에서 지켜 주고 보호해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사도들 중에서도 사도들의 가장 기둥이 되는 사도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다. 이 세 사도들은 주님과 매우 각별한 유대 관계를 이루고 있다. **믿음**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 주셨는데 베드로는 바위 또는 반석을 뜻하는 말이다.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하고 물으셨다. 이때 다른 여러 제자들은 “주님을 세례자 요한이십니다, 또는 엘리야이십니다, 또는 예언자이십니다.”라고 대답했으나 오직 베드로만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이를 보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저승의 세력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을 사도들을 대표하여 받으셨다.(마태 16: 13-20)

사도 야고보는 **소망**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야고보는 주님에게 특별한 소망을 요청하는데 그가 주님에게 부탁한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이 편하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천상의 소망으로서 주님께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옆에 함께 앉게 해달라는 소망을 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로 사도들의 기둥으로 알려진

다. 오직 요한의 복음서에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요한1서 4:8)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서로 귓속말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었다. 요한이 주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알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배반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 주님께 여쭙어보라고 하자 주님께서 요한에게 귓속말로 알려주시어 다른 제자들이 궁금해 하던 일을 요한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다. 또한 요한은 주님을 일컬어 ‘말씀’이라고도 기록했는데 주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직접 주님으로 부터 받아 듣고 기록한 것이 목시록이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주님 곁을 지켰으며, 주님의 부탁으로 홀로 남게 된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사도들의 기둥이 되는 세 제자들이 누리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은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볼 산에서 주님의 변모가 이루어질 때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이들은 주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때에도 함께 있었으며, 주님께서 겹세마니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도 근접 거리에 있으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 3면으로 계속

삶은 선물입니다

오늘 친절하지 않은 말로 말하기 전에 말을 할 수 없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먹는 음식이 맛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먹을 것이 없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 투덜거리기 전에 짝이 없어 하느님께 호소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대의 삶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기 전에 아주 일찍 이 세상을 떠나버린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 대해 무어라 못마땅한 말을 하기 이전에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집이 지저분하다고,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전에 찬바람 부는 거리의 노숙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가난해서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자유와 아름다운 자연이 주어졌음을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죄 없는 이 없으며, 언젠가 모두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세요.

우울한 생각으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질 때 푸른 하늘을 보며,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삶은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삶을 살고, 즐기고, 축하하고, 유익한 것들을 취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세요.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드리는 피땀 어린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 사도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과, 사도 야고보가 갈망한 천상의 소망과, 사도 요한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자. 세 분 사도들의 거룩한 삶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구하여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12일(토)에 슬라브교인 마리아 손, 데니스 티코미로프 유아들이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슬라브 교인 수련회 결산

지난 25일(금) ~ 27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는 슬라브 교인 수련회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개최되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만 카프착 신부님의 인도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 예배, 조과 토요일 대만과, 주일 성찬예배를 함께 드렸고, 또한 고백성사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토요일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 방문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교에 대한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정교회의 날

지난 10월 26일(토)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축일, 매년 봄 가을 ‘정교회의 날’을 정해 우리 성당을 방문해온 장신대 신학대학원생들과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학생들 약 50여 명이 성찬예배에 참여하여 성찬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이어서 지하 선교회관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함께 정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과 특히, 전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성모희보 성당

■ 정기 바자회

11월 3일(일) 성찬예배 후에 정기 바자회가 열립니다. 수익금은 자치구에서 행사하는 어려운 이웃돕기에 협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두 바자회에 참여하여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26일(토)에 결혼성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분들로서 신랑은 요르고 라우르 데끼스이며 신부는 피넬로피 이코노마끼이고, 먼 이국에서나마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자 결혼성사에 임하였습니다. 지인들과 더불어 축하 인사를 나누며 두 분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간예식

- 11월 8일(금) 미카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들 축일
 - 11월 9일(토) 성 넥타리오스 대주교 축일
-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